“온 세상에 평화를”…1만여 태고종도 발원 ‘한마음’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봉행된 ‘2025 태고종 영산재 · 국제수계대법회’에서 종정 운경 대종사의 법어를 참석 대중이 경청하고 있다.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법회

11월 8일 광화문 광장 일원서
1만여 대중 십선계 수지 ‘발심’
운경 스님 “계율은 해방의 길”
영산재 시연…평화 · 행복 기원
불교문화 체험부스도 ‘인기몰이’



국제수계법회에 증참한 전계 · 갈마 · 교수아사리와 증사 스님들이 국내외 불자들에게 연비의식을 진행하고 있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유산인 영산재 의식 중 천수바라가 설행되고 있다.

글=신중일 기자 · 사진=정현선 작가

“함께 발원합시다. 이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없어지길. 함께 기도합시다. 온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바라밀과 보살도를 함께 실천합시다.”

1만여 태고종도들과 불자, 시민들의 간절한 서원이 서울 광화문 광장을 거룩하게 장엄했다.

태고종(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11월 8일 서울 광화문 광장 일원에서 ‘2025 태고종 영산재·국제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종조 태고 보우 국사의 원융회통 정신을 바탕으로 한국불교 전통종단인 태고종의 정통성을 대내외에 알리고자 열린 이번 법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태고종의 위상과 발전 방향을 보여 주겠다”는 총무원장 상진 스님의 원력에서 비롯됐다.

이 같은 원력에 부응하듯 이날 법석에는 전국 태고종도와 국내외 불자, 시민 등 1만여 명이 광화문 광장을 가득 채웠다.

운경 스님 “중생구제 원력 갖자”

법회는 태고종 종정 운경 대종사를 비롯한 참석 스님들을 법회장으로 모시는 종사이운 의식으로 시작됐다. 광화문 광장에서 이뤄진 장엄한 전통 종사이운 의식에 대중들은 합장하며 선지식들을 맞이했다.

이날 법회의 증명 법사로 법상에 오른 운경 스님은 영산재와 수계의 중요성과 실천의 원력에 대해 설했다.

운경 스님은 “30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설하신 설법을 의식으로 재현하는 것이 영산재”라며 “오늘의 범음범패와 작법무, 바라춤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부처님의 원력과 가피가 현전하는 기도이며 원력이자 발원이다. 이는 부처님의 가피와 공덕으로 지구촌 모든 생명의 고통을 소멸하고 어둠 속에서 신음하는 모든 생명들에게 자비 원력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정 운경 스님이 법어를 설하고 있다.

이어 “계율을 속박으로 생각하지만 속박이 아니다. 계율은 해방의 길이요, 괴로움과 고통의 근원을 없애고 자유와 평등을 위한 길”이라며 “오늘 법회의 원력으로 자기 자신을 잘 살펴보고 스스로 자만하지 아니하는지를 살펴보라. 또한 이웃을 사랑하고 세계 평화와 인류 행복을 실현하며 자비로써 회향하는 불자가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상진 스님 “K불교 위상 세계에”

앞서 진행된 개회식에서 원로의장 호명 스님은 환영사를 통해 “불교는 본래 분별이 없는 자비의 종교이며 경계 없는 화합의 길을 걷는 가르침”이라면서 “오늘 이 자리가 종단의 수행승가뿐 아니라 시민과 예술인 그리고 모든 중생이 함께 어울려 평화와 상생을 발원하는 대동화합의 도량이 되기를 서원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은 봉행사를 통해 “오늘 시민 화합과 소통을 기원하는 2025 태고종 영산재를 통해 글로벌 서울과 대한민국의 미래가 날로 새로워지고 문화민족의 자긍심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면서 “국제수계대법회 역시 한국불교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드높이고 한국불교가 세계불교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하기를 염원하는 깊은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영수 문체부 1차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소중한 무형유산을 온전히 보존·계승하고 불교문화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위해 헌신하는 태고종에 깊은 경의를 표한다”며 “오늘의 법석이 한국불교의 높은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 시민들과 세계인 모두가 한국불교문화를 함께 향유하는 열린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총무원장 상진 스님이 봉행사를 하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병덕 국회의원이 대독한 축사에서 “이 법석에서 울려 퍼지는 법음이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의 마음을 위로하며 나아가 세계인류의 평화와 화합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축사를 통해 영산재와 국제수계대법회가 한국불교 전통문화를 널리 알리고 “세계 인류의 화합과 평화를 다지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헌승 국회 정각회장과 오세훈 서울시장 등은 영상을 통해 축하의 뜻을 전해 왔다.

더불어 평택 미군부대에서는 상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고, 상진 스님은 한국불교 포교에 기여해 온 담마끼띠 스님 등 외국 스님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수계법회 · 영산재로 대중과 소통

이어진 국제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에 수진 스님, 갈마아사리에 중앙종회의장 시각 스님, 교수아사리에 호법원장 구산 스님, 칠증사에는 국내에서 포교원장 재홍 스님, 포교원장 능해 스님, 태고총림 선암사 주지 승범 스님, 동방불교대학장 법담 스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운 스님, 고시위원장 휴완 스님, 해외교구 종매 스님이 참여했다. 국외칠증에는 계륭 스님(중국), 냐나난다 스님(스리랑카), 랏끼차폰 스님(태국), 난다카 스님(미얀마), 탁하이안 스님(베트남), 쿤상 도제 라마 스님(네팔), 법미 스님(미국)이 자리했다.



신상도 중앙신도회장이 대표로 수계증을 받았다.

수계법회는 전계아사리 수진 스님이 십선계를 내리고 참회와 연비의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대중은 보살도를 실천하는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했다. 연비의식 후에는 수계자 대표인 신상도 태고종 중앙신도회장에게 수계증을 전달했다.

수계식 이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유산인 영산재가 설행됐다. 영산재는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도량게, 법고, 거불, 축원, 향수나열, 사다라니, 가지게, 축원화청의 순서로 이어지며 한국불교 전통문화의 아름다운 승무와 범패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법회에 참석한 태고종도들은 높아진 종단 위상을 확인한 환희스런 법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정혜숙(73·청송 대천사 신도) 씨는 “광화문 광장에서 태고종도가 한데 모여 수계법회를 봉행한 것에 감개가 무량하고 기쁘다”면서 “모든 중생의 소원 성취와 평화로운 세상을 기원했다”고 말했다.

노경택(57·양주 청련사 신도) 씨는 “청련사 회주이신 상진 스님께서 총무원장으로 취임하신 후 높아진 종단 위상을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태고종도의 한 사람으로서 환희심이 든다”고 밝혔다.



해탈컴퍼니 체험부스에서 민속놀이를 즐기는 시민들.

‘힙불교’부터 ‘팬심’까지

이날 태고종은 문화로 대중과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체험부스도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특히 ‘힙불교’로 대표되는 ‘해탈컴퍼니’의 체험부스에는 ‘옴마니반메훔 타투 스티커’, ‘진언 손수건 만들기’, ‘민속놀이’를 체험하기 위한 불자와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또한 단청 그리기, 화과자 만들기 부스에도 불자와 시민들의 행렬이 이어졌다.

자녀와 함께 부스를 찾은 천태종 신도 김미선(42·인천) 씨는 “천태종 법회만 다니다가 이웃 종단 의례를 경험해 보니 감회가 새롭다”면서 “아이들과 함께 불교문화를 체험할 수 있어 즐거웠다”고 말했다.

‘옴마니반메훔 타투 스티커’를 체험한 박효주(42·대전) 씨는 “불자는 아니지만 너무 즐거운 체험이었다”면서 “‘옴마니반메훔’이 소원을 이뤄 주는 주문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도 잘되고 저도 행복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불자가수 송우주 씨의 팬들도 법회장을 찾았다. 김규리(66·서울) 씨는 “오늘 문화공연 행사에 독실한 불자인 송우주 씨의 무대가 있다. 팬으로서 많은 기대를 갖고 참여했다”면서 “영산재는 몇 차례 참여했는데 이처럼 대형 법석은 처음이다. 장엄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고 말했다.